



완산소방서 임실의용소방연, 의용소방대의 날 개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이 20일 임실치스테마파크 지정회관에서 개최됐다. '의용소방대'는 100년의 역사와 함께하는 봉사조직으로서 지난 2021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됐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는 임실의용소방대연합회와 함께 제2회 기념식 장을 마련하고 이날 '의용소방대'의 봉사과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기념식 자리에는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 심민 임실군수 이장재 임실군의회위원장 박정규 도의원 정일운 임실군의회 부회장 임실군의원 전주완산소방·임실의용소방대연합회 180여 명 등 총 190여 명이 참석해 의용소방대 홍보영상 시청과 시 낭송 등 유공자 표창 수여식, 기념사 축사 및 격려사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임실관객자 봉어십 답사 시간까지 가졌다. 임실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역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각종 재난 현장의 지역 안전 지킴이 역할 '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난피해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이웃사랑을 보이는 단체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통해 진심 어린 고마움과 감사로 인사드린다. 항상 화재예방 활동을 펼치며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분들께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굿네이버스 완진무장지역후원회, 온심키트 전달

굿네이버스전북지부와 전북완진무장지역후원회는 장수군 위기가정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위생용품 '온심키트'를 20일 전달했다. 전달식은 장수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됐으며 최훈식 장수군수 이현원 주민복지과장 양성복 드림스마트 팀장 오아름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장 송인호 전북완진무장지역후원회장이 참석했다. 굿네이버스 전북완진무장지역후원회는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마련해 '온심키트'를 제작했다. 후원금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으며 장수군 내 위기가정 여성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지원한다. 오아름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장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위생용품 구매에 대한 걱정 없이 성장하기 바란다"고 전하고 송인호 굿네이버스 전북완진무장지역후원회장은 "지역 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와 함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역 내 위기가정 아동을 위한 굿네이버스 완진무장지역후원회 마음에 감사하다. 앞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에타미 의료협력단, 캄보디아 아동진료에 21억 기부

전주 예수병원은 에타미가 PMCI(People for Medical Cooperat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협력단)에 21억 원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PMCI는 현재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의 의료 서비스 낙후 지역에서 대부분 예수병원 의료진들이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NGO단체이다. 에타미는 지난 2020년 PMCI와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한 후, 캄보디아의 아동진료서비스 기증 등 협력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기부하는 21억 원은 기존 아동진료서비스 운영 및 병리장비 구매, PMCI 임직원 연수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PMCI는 지난 2005년 설립됐으며 의료 봉사를 통해 저개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다.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인적자원 능력배양, 사회·문화·교육적 국제교류, 보건환경 분야의 국제교류 등이 있다. 특히 의료 서비스가 낙후된 국가에 전문 인력 파견 및 연수 등 인적자원 능력 배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김병선 PMCI 대표(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박근혜 회장과 에타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에타미는 영혼을 소중히 하는 사훈 아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경영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다. 절대품질 절대가격을 통한 '믿고 쓰는 에타미'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성공을 이뤄 나가는 직접판매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등교버스 '첫 출발'

무주교육지원청, 안성고 통학학생 등교버스 지원... 에듀버스·전세버스 등 활용

무주읍 학생들을 태운 등교버스가 안성고등학교로 출발했다.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은 무주읍에서 안성고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20일부터 등교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전북도청이 주관하는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 행복콜택시(통학택시) 사업을 통해 전북도청, 도교육청, 무주군청이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무주군에서는 하교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등교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김승기 교육장 취임 이후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안성고등학교 115명 재학생 중 무주읍 일원에서 버스나 학부모의 지원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약 35명임을 파악했다. 이에 무주교육지원청에서는 에듀버스와 전세버스를 활용해 등교 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가정통신문을 받지 못한 학부모가 있음을 확인, 통학버스 담당 주무관들이 터미널로 찾아가 승차하는 학생들을 직접 만났다. 이후 통학버스의 필요성을 듣고 승차 인원을 파악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한편 이날 17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청 관계자



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매일 등교를 시키는 부담이 줄었고, 특히 버스 배차 시간이 도심권과는 다르게 30분 간격으로 있어 아이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무주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 이뤄져 정말 기쁘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안수진 행정지원과장은 "무주군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통학버스(택시) 예산을 확보해 무주군의 더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후백제 문화권, 진안군-전주시 고향사랑 상생기부

후백제 역사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진안군과 전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양 지자체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향사랑 상생기부에 동참했다. 20일 전춘성 군수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진안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전달하고, 진안군과 전주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 시군은 상호 기부를 통해 진정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의 의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문화를 복원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21년 양 시군이 맺은 전주승화원 현대화사업 관련 업무협약과 관련 올해 하반기부터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진안군민도 동등한 자격으로 승화원 이용을 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향후에도 양 시·군간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로 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과 전주시는 후백제문화권을 비롯해 융합도시 식수 제공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상호 고향사랑기부 행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전주시와 진안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출향 인사를 비롯한 타지역 가족 친지들이 기부에 동참하도록 적극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대병원, 2023 찾아가는 암생존통합지지센터 출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화철) 전북권역 암생존통합지지센터에서 전라북도 암생존자와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암생존통합지지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찾아가는 암생존통합지지센터는 암 조기진단과 치료기술의 발달로 암생존자가 늘어나면서 치료 후 후유증 암 재발 두려움 등 신체적·정신적 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전라북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암특화 요양병원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암생존자와 가족에게 암 치료 후 영양·식생활 관리, 운동 교육, 림프부종 관리, 심리 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암생존자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더불어 도내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암생존자 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이번 찾아가는 암생존통합지지센터는 지난 15일 진안군 정전보건지소 암생존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암 치료 후 영양·식생활관리, 림프부종 마사지 교육으로 시작했다. 또 16일 김제 가족사랑요양병원 암통합면역센터 임직원들에게 암생존자의 영양·식생활관리, 암생존통합지지사업의 이해에 대해 교육하여 김제시 암생존자에게 통합지지 서비스 확산을 위한 협력사항을 공유했다. 전북권역 암생존통합지지센터장 송은기 교수는 "암생존자가 찾아가기를 기다리는 암생존통합지지사업이 아니라, 찾아가는 암생존통합지지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해 지역사회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라북도 보건·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아 기자



남원농협, 농업인 대상 요가교실 운영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남원농협 고죽통합센터 내 회의실에서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농협의 요가교실은 농업인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문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련되었으며, 매주 월·수·금요일에 50명, 화·목요일에 50명을 대상으로 오전 9시 10분에서 10시 30분까지 1시간 20분간 진행된다. 한편 박기열 조합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열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주민자치회, 요천벚꽃길 환경정화활동

남원시 죽향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진택)는 봄철을 맞이하여 심수정 주변과 요천벚꽃길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다음 주엔 요천벚꽃이 만개할 예정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꽃구경을 위해 많이 모일 것에 대비해 깨끗한 관광지를 만들고자 죽향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선 것이다. 이날 활동에서는 남원시민의 휴식공간인 심수정을 시작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요천벚꽃길 구간의 버려진 담배꽂이 및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김진택 위원장은 "차지사랑방 활성화 및 시민 평생교육 정책이 결실하게 자치사랑방을 더욱 알차게 꾸려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전 전북본부, 봄철 산불 위험 예방 홍보 앞장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하게 부는 강풍에 따른 산불 화재 위험에서의 사전 대비차 한국전력공사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환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은 산불 취약기인 3월을 맞아 지난 16일 모악산 도립공원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김영환 전북본부장 및 한전 전북본부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모악산을 찾은 등산객과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산불로 인한 송전선로 고장발생 사례 및 신고 요령 등을 홍보했다. 한전 전북본부는 "모든 전력설비에 대한 방호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자체·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설비에방대책을 수립·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봄철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대형산불은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전북본부장은 "단 한순간의 전력공급 차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속에 봄철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매년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 등 산불방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여성경제인협 전북지회, 제1차 리더십스쿨 교육

변화의 시대가이치 혁신과 빠른 정보 활성화가 사업성공으로 표출시키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여성기업가들이 뭉쳤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올해년도 제1차 리더십스쿨 교육을 마련해 참가했다. 지난 16일 열린 리더십스쿨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개최했으며 이곳에서 협회원들은 3월 월례회까지 함께 진행 한 것으로 밝혔다. 도내 여성 기업인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주제로 제1차 리더십스쿨은 진행됐다. 여기서 2년 진행되는 '고용장려금 공고 안내, 지원 사례' 등 기업 운영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돼 각 여성기업가들에게 많은 도움과 알찬 정보들이 제공됐다. 이날 박숙영 회장은 "시니어인턴십, 청년알자리도양장려금 등 여성경제인들의 기업 경영에 실용적인 정보로 가져가길 바란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앞으로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펼칠것이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

남원시가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기한 민원의 처리 기간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 처리하기 위한 민원 처리기간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남원시는 그간 유기한 민원 497종 중 242종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해 추진왔으며, 이번 일제정비로 6월 이상 유기한 민원 75종의 민원을 추가로 총 317종의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한다. 특히 민원 처리기간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는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민원인이 한 곳에서 인·허가 민원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에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3개의 창구에 인·허가 담당자를 집중 배치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권혜정 민원과장은 "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